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0:13~15)

광고하지 않으면 알 자가 없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말해줘야 알고, 보여줘야 압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광고요, 광고는 성공 전략 중 으뜸입니다.

광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첫 장 첫 구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광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광고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롬4:17)이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삼상2:6~7)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모델로 세워 광고하셨습니다. 광고를 꼭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자이심을 성경은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래서 그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을 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널리 알리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광고해야 잘 팔린다

광고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광고 전략이 뭘니까? 바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져보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천국이 있음을 광고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였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행2:22). 당연히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광고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식당의 음식 맛이 좋으면 일단 내 가족에게, 회사 동료에게, 친구에게 “거기 가봐, 아주 맛있어.”라고 광고해주듯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고를 이어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내셨습니다. ‘나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가 나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

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천국을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일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 소식을 전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저도 고인이 되신 한만영 장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천국을 전파해서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요? 물론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아닌 누군가를 택해, 그 누군가조차 하지 않으면 돌을 명하여서도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자라목이 되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은 자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보장된 것이니까요. “내가 선택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

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6~8). 듣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딤후4:2).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광고에 주력하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안수

하여 낮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이뤄지는 일이 우리에게 계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저는 예수님의 광고전략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모든 집회 전에 성령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낮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고가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광고하지 않는 자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렘33:7~8).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었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아산 이순신체육관 집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광고, 전단지과 현수막으로 광고하고, 또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광고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 복된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이 집회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광고를 제대로 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광고와 성공은 정비례한다 성공하길 원하면 광고하라

10월 9일, 청주 집회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집회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친구, 친지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적은 힘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심어 동참해야 합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대로 둔다면 약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24:11~12).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단연 으뜸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막1:38),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막3:14).

교회의 사명, 믿는 자들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심도 아직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15:16).

아직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꼬?’ 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라고 손을 번쩍 들시다.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접하고 동네로 나가 전했듯이(요4:39).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아름다운 인생 ::

주의 일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라

세상이나 교회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이 있고, 방해자가 있고, 방관하는 자가 있다. 교회나 교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떤 이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런 이들을 시기 질투하여 비아냥거리거나 모함하고 편지 걸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다는 듯이 뒷집 지고 보고 있는 자들도 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곽을 중건할 때도 가문별로 적극적으로 구간을 맡아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꼴 보기 싫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자들이 있었고, 뒷집 지고 구경하는 자칭 귀족이라 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써서 하신다. 누가 방해한다고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방관한다고 멈추시는 분도 아니시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들이나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 일에 동참한 가롯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셨다.

이시대 목사

우리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뿌린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주위에서 하나님 일하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을 보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신뢰를 보내고, 함께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시기 질투하고 편지 걸고 방해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라.

예레미야 38~39장에 보면 에벳멜렉이라는 흑인 환관이 나온다.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모함하여 구덩이에 던져 굶겨 죽이려 할 때, 그는 왕에게 나가서 간곡히 청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살려낸다. 후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했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의 자녀들과 모든 신하들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살렸던 에벳멜렉을 살리셔서 예레미야에게 돌려보내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을 도운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엘리야를 도운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인에게도 여러 가지로 축복하셨다.

주변에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나 종들을 만나면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빌4:1~3).

:: 세상을 보는 창 ::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을 보고

십자가 언덕 아래에는 침묵만 남아있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로마에 의해 처형된 한 반역자에 불과했다. 그때 조용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다.

당시 이단의 과수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예수,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잡혀 가던 상황이었다. 주님의 제자들도 한 곳에 숨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을 때 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사람, 아리마대 요셉(막15:46).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사용할 무덤 안에 안치했다. 세상은 예수를 실패한 지도자로 보았지만, 요셉은 그를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모신 것이다.

조선의 역사에도 폐위된 왕으로 살다가 애절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있었다. 얼마 전 한국 영화계에 폭풍 같은 바람을 일으켰던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주인공, 조선 시대 강원도 영월의 평범한 마을 호장이었던 엄흥도라는 사람이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라’는 세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려진 왕의 시신을 거두고 정중하게 모셨다.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선택이었다. 단종의 시신을 묻은 후에 자신과 조상의 족보를 없애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존재 자체가 사라진 무명인으로 살아야 했던 오랜 세월,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때 단종이 복위되고 엄흥도 역시 ‘충의’라는 시호를 받았다. 생명을 걸고 눈물로 시신을 안장했던 그 자리는 오늘날의 ‘장릉’이 되었고 역사는 그의 이름을 충성스러운 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엄흥도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모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온몸의 피를 쏟으며 고통 속에 호흡이 식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묵묵하게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정금 전도사

아무도 보지 않아도

며칠 전 교회 출입구에서 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사이의 틈에 핀 노란 꽃을 보았다. 누가 보아도 꽃이 피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곳에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만약 꽃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이런 곳을 선택했을까? 비옥한 흙과 물이 있고 사람들이 감탄해주는 정원에서 피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꽃이 그 자리에 피어난 이유는 하나였다. 씨가 그곳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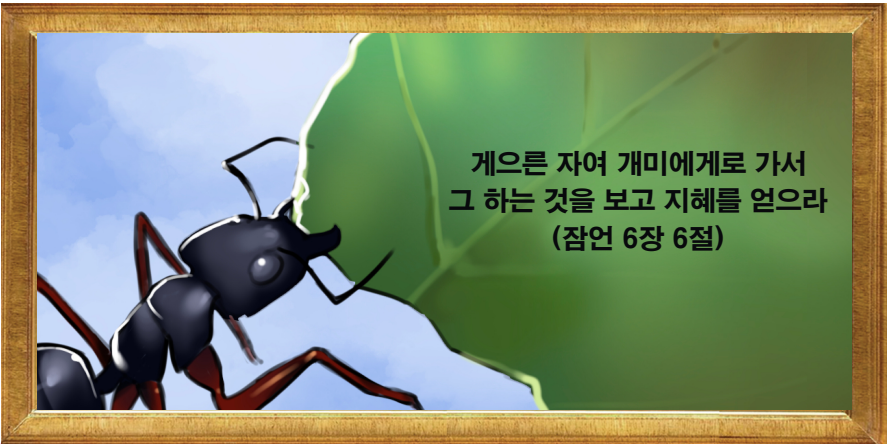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한다(행17:26). 홀로 피어난 꽃처럼 나도 우연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1학년 첫 종강예배 말씀이 떠오른다. “새싹이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다.” 햇병아리지만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

다. ‘그래, 일단 살아남아 보자.’ 그렇게 버티던 새싹이 어느덧 4학년이 되었다. 내가 그러했듯이 꽃 역시 처음에는 살아남는 게 목적인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꽃이 해야 할 다음 일은 결국 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그 단순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꽃에게는 아무도 보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 왔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여 꽃을 피워내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제 뭍을 다한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임을 배운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죽이시면서 살리신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어느 유학생의 간증이다.

보험이 없는 상태로 미국 본토에서 자녀를 출산했더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청구되었다. 그 병원비를 갚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원의 또 다른 부서에서 의료비가 청구되었다. 부서별로 따로 청구되는 미국 병원의 관례를 알게 되었고, 또다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웬걸 또 세 번째로 병원비가 청구되어 경악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학 와서 공부느커녕 빚만 갚다가 끝나겠다 싶어서 말이다. 유학생의 뼈대한 경제 사정을 솔직히 말하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이다. 병원 사회복지 담당자가 듣더니 몇 가지 서류들(통장 잔고증명서와 수입상황 내역 서류들)을 요청했다. 그리고는 서류제출 한 달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단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정부에서 당신의 병원비를 갚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유학생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도리어 너무 좋은 일이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반전의 해방감을 경험한 것이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다. 말이 안 되는 듯한 모순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으로 향하는 진리의 경험이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역설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면서 살리시며(신32:39), 찢으시면서 도로 낚게 하시는(호6:1) 이해 불가의 일을 하신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 내 최선의 베풀 끝에서 한계를 솔직히 고백할 때 드디어 당신이 갚아주신다. 파산선고를 받은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손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창3:15). 의로워지려는 인고의 노력 끝에 도리어 곤고할 대로 곤고해진 한계를 인정하고 파산선고한 바울(롬7장)! 결국 생명의 성령의 새 법으로 해방의 선언을 하게 되었고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롬8:1~2).

하나님께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 안식은 완성이다. 파산한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주권자 하나님의 뭍이다.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자리를 우리는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한다.

송직화 목사

믿음의 세계



“네가 죽었다고 인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죽었다고 인정하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무시하기엔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 한 번에 들어도 이젠 영적인 것을 시사하는 꿈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죽어가는구나. 사단이 항복선언을 받으려는구나.
갑자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격동됐다. 믿음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인 게 여실히 알아졌다.
서른여섯, 전 삶을 뒤바꿀 내 거듭남은 작은 한 꿈으로 시작됐다. 거듭나니 일어난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믿음이였다. 거듭남과 이어 찾아온 결혼, 나의 신혼은 주님

과도 신혼이었다. 20대 믿음의 허술한 시대는 지나가고, 주님과 첫사랑을 즐기기에 예수중심교회는 내게 잘 맞는 교회였다. 영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도 잘 맞았다.
귀신이 있고, 귀신이 내 생활을 뒤바꾸고, 내 영을 쏙먹으며, 내 삶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선포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건 내겐 환희였고, 신세계였다. 그보다 더 멋진 영적 체험이 없었다.
그렇구나. 내가 죽어가던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던 것도 모든 게 영적인 힘이란 게 너무 신기했다. 영혼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내 삶에 귀신이 사라지고 차단된 영적인 전선이 이어지니, 방언으로 기도가 살아나고, 토막 난 믿음에 불이 지퍼지니 죽어있던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숨 쉬고,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꿈과 이상과 말씀으로 주님과 교감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셨다. 주님이 실재가 되셨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난 천국을 경험했다. 매일의 삶이 감격이었고, 눈물이었고, 기쁨이였다. 첫사랑이 시작된 나는 주님을 자주 보고 싶어 했고, 교회가 가고

싫어 안달이 났으며, 그때 기분은 저 위대한 종이 더 늙기 전에 내가 무슨 힘이라도우리라. 그랬다.
아이를 갖기 전 미리 꽃을 꽂아 놓고 합방 전 기도했으며, 아들을 달라했더니 예수님이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꿈을 꿔다. 아이의 이름 속에 우리 믿음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랑), 주안에서(주안).
내 영혼이 자유로우니 반 평 좁은 방 안이 비좁지 않았고, 불 꺼진 공용화장실도 귀신 쫓는 연습터가 됐다. 만삭에도 불구하고 3시간 기도가 복 받는다고 허리를 잡고 기도를 사수하고, 찬송가를 입에 달고 살던 그 첫사랑, 주님과 신혼 때 천국과 지옥을 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온 세상 집들의 문이 열려있고, 검은 넝쿨 같은 뱀들이 집마다 뒹치는 꿈과 물에서 뛰쳐나와 자살하려는 물고기들을 다시 물에 넣어주는 반복된 계시를 통해, 작은 아이 4살 때 신학에 들어섰다. 목사님을 드디어 도울 수 있겠구나.
금천교구에서 7년 사역을 끝내고, 남양주 퇴계원에서 개척하게 된 것도 세 번의 반복적인 계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20명의 성도와 열심히 진행 중이다.

믿음의 세계는 ‘동화보다 더 동화 같고 신화보다 더 신화 같은’ 세계다. 바다가 갈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떡과 생선이 계속 생기는 기적 같은 세계다.
하나님과 사랑은 점점 무르익어 간다. 내가 개척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목사님께 배운 한 가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고 싶었다. 그게 진짜 믿음일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께 올인하게 될 것 같아서.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고 싶었다. 그랬더니 정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약속이다. 변개치 않는 약속이다. 거짓말을 못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짚어 놓은 도장과 같은 약속이다. 그것만 붙들면 천하 만민이 부러워할 새로운 세상에 초대될 약속이란 걸 안다. 나는 그 황홀경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다. 생각해보면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은혜였다. 넘어질 때, 힘들 때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듯이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나는 내 믿음이 힘들 때 다시 교정됐고, 환난이 올 때 믿음이 날개를 달았다. 할렐루야!
퇴계원 예수중심교회 박정님 전도사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관점의 변화, 삶으로 바꾸는 감사의 고백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은 전혀 달라진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눈앞의 조건에만 시선을 두면,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과도로 가득한 불안한 바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의 방향을 돌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같은 현실도 거룩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새롭게 해석된다. 결국 신앙이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해가는 거룩한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기뻐할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조건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이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

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시107:1)”라고 고백했다. 참된 감사는 상황의 좋고 나쁨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삶을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고난과 실패는 피하고 싶은 비극일 뿐이다. 그러나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과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눈앞의 시련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된다. 창세기 속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창50:20)라고 고백했다. 여기서 ‘바꾸사’라는 표현에는 절망을 역전시키고,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헬라어에서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Charis)에서 비롯된 말이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영혼의 상태이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영혼에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샘솟는다.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만, 신앙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관점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환경과 수치스러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된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나 성공이 아닌 하늘에 둘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세상의 인정에 연연하기보

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듯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진다. 다윗의 삶이 아들람 굴이라는 캄캄한 광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고난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시선을 고정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온전히 동의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이다. 눈앞의 시련 하나에 휘둘리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의 교정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찬란한 은혜의 기적이 되고 감사의 시(詩)로 피어날 것이다.

권정미

순종하여 금식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 기쁜 소식 어찌 자랑해야 할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올립니다.
이번 금식을 통해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3일 금식 했는데 그동안 육체에 병든 것이 다 고쳐졌어요. 잇몸과 치아가 쭉시고 아팠던 것, 목에 땀새와 가래 있어 아픈 것, 잠잘 때 골반 쪽, 가슴 쪽 아파 잠 못 이루며 보낸 나

날들, 항문 쪽 붓고 아파서 제대로 볼일 못 보던 것, 피를 쏟아내며 다 고쳐주시네요. 저는 목사님의 믿음처럼 병원 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함께할 것이란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며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둘째 주 수요일 저녁, 홍약의 결박을 푸는 금식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듣고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했더니 이렇게 다 고쳐주시네요. 그토록 빠지지 않던 살도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에 옮겼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알라뷰♡
춘천예수중심교회 김영옥 권사